

한국 신종교 개창자의 탄생설화와 종교문화*

윤 재 근

대진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한국 신종교의 정체성(Identity)을 종교 개창자의 탄생설화를 매개로 하여 한국의 종교문화에 대한 기저를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수운, 증산, 소태산 등 이른바 한국 신종교의 개창자들은 19세기 말이라는 조선 후기 사회를 공유했던 인물들이다. 한국 신종교 개창자들의 일대기는 그 자체가 한편의 신화와 같다. 탄생에서부터 구도과정, 종교사상의 형성, 종교의 탄생이 모두 신이하며 특수한 요소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탐구해 보면 나름대로의 당위성이 존재한다. 시대상황과 종교문화 그리고 당대의 민중들이 갈망했던 이상향이 한편의 신화와 같은 한국 신종교 개창자들의 일대기에 고스란히 반영된다는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한국 신종교 개창자들의 탄생설화에는 19세기 말이라는 특수한 시대상황 속에서 잘못된 지배체제에 오랫동안 억압받아온 민중들의 잠재된 욕구와 보다 나은 경제적 상황에 대한 열망이 투사된 것으로 이해된다. 아울러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한 상황에서, 지상과제였던 민족주의적 성격도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민중들로 하여금 혼란한 현실을 타개하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대망을 기약하는 종교사상적 회귀를 추구하게 하였다.

수운이나 증산과 같은 한국 신종교의 개창자들은 이처럼 정신적 고뇌에 시름하고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는 당시의 민중들에 대한 종교적 구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 결과 이러한 사회 인식과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적 자기각성을 통하여 새로운 종교사상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한국 신종교 개창자들의 탄생설화를 통하여 당시 기층민중들의 삶의 의지가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핵심 주제어: 한국 신종교, 조선후기, 탄생설화, 수운, 증산, 개벽, 해원

* 이 논문은 2008학년도 대진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I. 논의의 관점

신화(myth)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무수히 전승되고 있는 옛이야기이다. 가장 보편적인 창조신화는 인간의 기원과 세계의 형성에 대하여 절대자의 권위를 빌려 서술하고 있으며 후대의 인간들에게 믿어질 것을 전제하여 전개되는 서사 드라마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창조신화의 내용에 이러한 보편성이 보이는 것은 우주와 인간의 기원에 관한 궁금증이 인간으로 하여금 다양한 해석을 낳게 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이것은 신화 형성의 시기와 이에 참여한 사람들의 기대와 열망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인간과 외계사물의 기원에 대한 탐구는 종교에서부터 자연과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다. 이것은 인간과 우주의 기원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이 문제가 인간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의 문제인지를 대변한다고도 볼 수 있다.¹⁾

한국 신종교 개창자들의 일대기는 그 자체가 한편의 신화와 같다. 그들의 탄생에서부터 구도과정, 종교사상의 형성, 종교의 탄생이 모두 신이하며 특수한 요소들로 채워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탐구해 보면 나름대로의 당위성이 존재한다. 시대상황과 종교문화 그리고 당대의 인류들이 희망했던 이상향이 고스란히 반영된다는 사실이다.

수운, 증산, 소태산 등 이른바 한국 신종교의 개창자들은 19세기 말이라는 조선후기 사회를 공유했던 인물들이다. 주지하다시피, 조선 후기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적 불안이 극에 달해 있던 시기였으며 서구세력이 동양으로 밀려오는 이른바 서세동점의 시기였다. 이러한 혼돈의 현실적 상황은 그 시대의 사상적 동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당시 조선의 지배이념이었던 성리학은 시대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경세지학(經世之學)으로서의 실효를 거둘 수가 없었다. 이에 반해 민중들의 의식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민중의 의식은 그들의 예술, 문학, 음악 등에서 잘 반영되고 있다.²⁾ 조선 중기 이후의 한글 소설이 대부분 양반을 풍자하거나 사회모순을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가 하면, 판소리, 타령, 탈춤과 가면극 등은 당시 사회의 모순을 대담하게 비판하며 민중들의 불만을 신랄하게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불만의식이 급기야는 새로운 종교의 출현을 재촉하여 종교를 통한 사회의 변혁을 꾀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혁세적 종교사상은 그 내부에 일상적 감성에 적합한 논리구조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강한 생명력과 전파력을 지닌다.

결국 역사적 전환기와 사회적 급변기에 정국의 혼란, 사회적 불안, 가치관의 붕괴, 지배종교의 쇠퇴, 기성종교의 화석화 등의 사회병리현상은 당시의 기층민중들로 하여금 새로운 지배이념과 정신적 안식처를 갈망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한국 신종

1) 김난주, 『음 심리학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신화』(서울: 집문당, 2007), 15-18쪽 참조.

2) 윤재근, 『대순사상의 인간형성이론』(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24쪽.

교 개창자들의 탄생설화를 통하여 당시 기층민중들의 삶의 의지가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신화가 가지는 종교문화적 상징성

신화는 말 그대로 신에 관한 이야기이다. 신화는 허구이거나 역사성이 없다고 하는 말은 이제 진부한 말이 되었다. 왜냐하면 신화를 통하여 당대의 시대인식 및 종교의 역사와 문화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화는 더 이상 참과 거짓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 신화 속에 나타나는 서사와 신적 존재에 관한 성스러움을 뜻하는 가치중립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종교학적 의미에서 신화는 일상적인 시간이 아니라 일종의 신화적인 시간이며, 엘리아데가 라틴어로 표현한 바에 따르자면 “태초의 그때에(in illo tempore)” 일어난 사건들로 간주된다. 또한 용에 의하면 심층상징이나 원형이 인류의 무의식 속에 들어 있으며, 이는 다양한 문화권의 신화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신화의 연구는 지금 여기의 우리 의식과 단절된 것이 될 수 없다³⁾고 한다.

신화라는 용어는 서양의 학문을 받아들인 일본에서 번역된 것으로,⁴⁾ 신화는 ‘신(神)’을 뜻하는 글자와 이야기를 뜻하는 ‘화(話)’자로 이루어져 있어서 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정의는 지금까지도 널리 통용되고 있는 신화의 개념이기도 하다.

최남선은 “신화란 것은 원시인이 모든 형상을 신의(神意) 신사(神事)로 보아서, 신격(神格) 중심으로 해석 설명을 시험한 것”⁵⁾이라 설명하고 있다. 즉, 상고시대의 당대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신 중심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최남선의 이러한 해석은 이후 학계에 오랜 기간 통용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의 문제점이 발견된다. 고대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에만 신화란 명칭을 붙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것이다. 신이 등장하는 이야기는 현재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고대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신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만들어질 개연성은 풍부하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현대라는 시간이 투영되어 나타난 결과물이 되기 때문에 고대적인 의미의 신화는 아닌 것이다.

한편, 김태곤은 신화를 ‘신성시(神聖視)’되는 이야기⁶⁾라고 하였으며, 서대석은 신화를 신성성을 본질로 하는 것이라 하였다.⁷⁾

3) Ninian Smart, 김윤성 역, 『종교와 세계관』(서울: 이학사, 2002), 124쪽.

4) 大林太良, 권태효 역, 『신화학입문』(서울: 새문사, 1995), 11-12쪽.

5) 최남선, 『檀君 及其研究』, 『別乾坤』, 1928. 이기백 편, 『단군신화논집』에 재수록(서울: 새문사, 1988), 10쪽.

6) 김태곤, 『韓國의 巫俗神話』(서울: 집문당, 1985), 11-14쪽.

신은 최소한의 인격성을 전제한 개념이다. 그런데 신화에는 인격적인 신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신을 포함하면서도 좀 더 광범위한 신성적 존재를 뜻하는 ‘신성성의 근원적 존재’ 개념이 필요하게 된다. ‘신성성의 근원적 존재’에 대해 가장 무리 없는 정의를 내린다면, ‘인간이 갖지 못한 경이로운 힘을 지닌 신성한 존재’ 정도일 것이다.

신화 속에서 신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그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보는 일이다. 이렇게 본다면 신화 속에서의 신은 일단 둘로 나뉜다. 신화의 주인공과 이 신화의 주인공을 둘러싼 배경으로서의 신이다. 배경으로서의 신은 그 존재론적 층위가 서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므로 ‘절대신’이라 부를 수 있다.⁸⁾

여느 민족과 마찬가지로 한국인에게 있어서도 절대신의 개념은 존재한다. 그리고 절대신의 개념은 계속된 논의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절대신 개념은 인간과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고 그 운행을 관장한다고 믿어지는, 궁극자이자 초월자에 대한 신앙행위의 문제로 이어졌다. 또한 특정한 시대나 특정한 종교 전통에 구애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이어져 온 한국인의 종교심성과 관계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한민족의 절대신 신앙을 확인하는 작업은 고대 건국신화에서 보이는 천신들의 개념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단군신화는 천상세계와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상에서의 천신의 성격이 상당히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⁹⁾

단군신화에 나오는 천신은 분명 현실적 존재태로서의 인간과는 다른 차원의 존재이다. 또한 단군신화에 나오는 천신은 인간과 세상사를 주관하는 절대적 존재이기도 하다. 인간사에 대한 그의 등장과 다스림이 곧 인간 세상의 질서를 비롯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인간 세상에 대한 통치가 아무런 걸림돌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정도로 그는 절대적 권위를 지닌 존재로 인식된다. 그가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했다는 주장까지는 제시되고 있지 않지만, 인간 세상에 대한 그의 권리가 본래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느낌이다. 결국 단군신화에 나오는 환인-환웅은 인격적 절대신으로 인정해도 무리가 없는 존재이다.

이처럼 한국 고대인의 가장 원형적인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는 단군신화에서의 천신이 절대적 존재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고대 한국인들의 의식 속에 천신이 차지하고 있던 위치와 의미를 추측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는 곧 가장 고대의 가장 원형적인 한국인들의 의식 속에 하늘을 대상으로 한 종교적 심성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우리의 개국신화가 이러할진대, 한 민족의 원형을 이야기하는 신화를 단순한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 상상력의 산물, 역사성·진실성·과학성 등과는 전혀 관계없는 허구의 세

7) 서대석, 『한국신화의 연구』(서울: 집문당, 2001), 4쪽.

8) 윤혜신, 『한국신화의 입사의례적 탄생담 연구』(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27-28쪽.

9) 박법석은 『단군신화 상징의 종교학적 해석』이라는 논문에서 단군신화의 서사와 상징에 대한 해석을 종교학적 담론으로 서술하여 신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볼 수 있게 하였다(박법석, 『단군신화 상징의 종교학적 해석』, 『선도문화』 제1집(충남천안: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국학연구원, 2006)).

계로 이해해서는 인간의 종교적 심성에 기초한 문화적 원형을 이해하기 힘들다. 이제 신화는 인간이해, 특히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원형적인 의식세계를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엘리아데는 “모든 신화는 그 성질과 관계없이 태초의 때에 일어난 사건을 설명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모든 행동이나 상황에 대한 모범적인 선행이 되고, 결과적으로 모든 행동이나 상황은 그 사건을 반복하게 된다”¹⁰⁾라고 하여 신화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신화는 단지 태초의 일회적인 기술로 끝맺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신화가 지니는 의미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데에 중요성이 발견된다.¹¹⁾ 신화는 역사를 말하는 이야기이지만 근대적 의미의 역사기술과는 다르다. 역사는 사실적(事實的)이지만 신화는 사실적(寫實的)이기 때문이다. 역사는 일회적이지만 신화적 사실은 반복된다. 신화가 말하는 역사는 특정한 시대의 사실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반복해서 재현될 수 있는 살아 있는 역사이다.¹²⁾ 그래서 신화는 역사와 시간을 관통하는 근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신화는 일종의 종교적 교의¹³⁾로 이해되기도 한다. 우리는 신화를 통해 세계관, 신관, 인간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신화 자체의 역사성, 진실성, 과학성 등을 떠나 신화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 자체로 종교적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화는 자연계, 인문계의 여러 현상을 서술하고 설명하는 민족발생적인 설화이며 성성적(聖性的) 속성적(俗性的)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수운과 증산에 관한 탄생의 이야기가 창조적인 원고(遠古)시대에 일어난 사건을 서술한 것이 아니고 고유명사를 가진 특정 인물에 관한 서술내용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설화(說話)로 표현하고자 한다.

Ⅲ. 한국 신종교 개창자의 탄생설화

종교의 신화나 설화의 중심적인 줄거리를 보면 보통 신적인 존재가 인간의 몸으로 현현하는 이야기가 많이 발견된다. 대개 신은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 사자를 보내지만 예수와 같이 신적인 존재가 직접 속세에 내려오기도 하기 때문이다.¹⁴⁾

종교학에서 이러한 사건은 하나의 패턴으로 간주되고 있다. 보통 인신강제는 초월성과

10) M. 엘리아데, 이은봉 역, 『종교형태론』(서울: 형설출판사, 1982), 465쪽 참조.

11) 엘리아데에 의하면 신화는 신화 고유의 반복되는 주술종교적 역사를 구성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근대적 개념의 역사와는 구별되며 신화를 통한 반복 자체에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한다(M. Eliade, *Patterns in Comparative Religion*, trans. by Rosemary Sheed(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96), pp.429-430. 참조).

12) 나경수, 『한국의 신화연구』(서울: 교문사, 1993), 20쪽.

13) 나경수, 위의 책, 1쪽.

14) 윌리엄 페이든, 이민용 역, 『성스러움의 해석』(서울: 청년사, 2005), 149쪽.

내재성, 절대성과 상대성, 무궁성과 시간성, 물질과 정신, 전체와 개체, 신과 자연, 신과 인간 등 모든 대립을 일체(一體)로 귀일(歸一)시키고 포용시키는 종교적 사건으로 보기 때문이다.¹⁵⁾

1. 수운의 탄생 설화

본질적인 의미에서 한국 종교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동학은 19세기 중반이라는 조선조 후기의 시대적 어려움과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인 혼란 속에서 잉태되었다. 또한 동학은 민족과 국가가 처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힘의 소재가 위정자나 지식인 등 집권 계층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모든 민중들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또 이러한 가르침을 민중들에게 펼쳐 나갔던 민중 종교 사상¹⁶⁾이라고 볼 수 있다.

동학의 교조인 수운 역시 몰락한 양반의 아들로 일찍이 현실적인 고난과 고통을 안고 살고 있던 소외계층의 한 사람이었다. 다만 당시 대부분의 빈한한 계층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높은 지식과 학문을 갖추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시대적 고난을 걱정하고 나아가 시대적인 고통을 우주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이를 구하고자 하는 사고와 실천력을 지닌 지식인이었다.

수운은 만인평등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시천주 사상을 내세우며 한울님이 인간의 마음 속에 있다고 강조했다. 시천주의 가르침이란 우주의 질서가 새로워져 민중이 후천의 새 질서를 펼쳐 나가는 것이다. 동학 설화는 이러한 민중적 힘과 주체를 강조했기 때문에 교세를 펼쳐 나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발생하였고 종교적인 신비적 성격을 더하였다¹⁷⁾고 볼 수 있다.

동학 설화는 동학을 지키기 위하여 관에 체포되어 순교한 수운에 관한 이야기로 집약되고 있다. 또한 수운이라는 역사적인 인물을 중심으로 형성된 설화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는 전승자의 의식 속에서 허구로 의식하기보다는 사실로 신성화되고 있다. 따라서 수운의 생애를 중심으로 설화와 역사적인 기록을 서로 비교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수운은 1824년 음력 10월 28일 오늘의 경북 월성군에서 태어났다. 수운의 탄생에 관해서는 수운의 탄생 이전의 설화와 탄생 설화 이렇게 두 가지가 전해지고 있다. 먼저 탄생

15) 윌리엄 페이든은 성스러움이 문화에 따라 경전, 위대한 인물, 고위 성직자, 신, 조상, 산이나 강 같은 자연, 부처가 가르친 수양의 길, 혹은 성스러운 의례에서도 나타난다고 한다. 이런 대상들, 말쑥들, 존재들, 계율들에는 신자들의 삶을 규제하고 일깨워 나아가게 하는 힘이 가득 차 있다. 어떤 대상이라도 성스러운 힘을 실어 나르는 수레가 될 수 있는 것이다.(위의 책, 132쪽)

16) 윤석산, 『동학설화와 동학의 역사-수운최제우의 성장과 출생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19집(서울: 비교민속학회, 2000), 401쪽.

17) 최제우는 한울님과 인간의 일체화는 수양의 결과 한울님을 자기 속에 모시는 것으로서 이러한 논리는 최시형에 이르면 하늘을 공경함을 인간을 공경함과 동일한 구조 속에서 바라보게 된다(윤천근, 『최제우의 인간관』, 『한국동서철학연구회 논문집』 제12호(대전: 한국동서철학회, 1995), 196쪽).

이전 수운이 잉태될 때의 이야기를 찾아보면 이는 우리의 서사문학에 나타나는 영웅 출생담 속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¹⁸⁾

崔 鑾은 호를 近庵이라고 稱하는데, 더욱 道學이 높아 경상도 일대 士林의 辭表가 되었다. 최옥은 文章과 道德과 家勢가 아울러 隆盛하되 다만 사십이 넘도록 자식이 없음을 恨歎하더니, 하로논 偶然히 內室에 들어간 즉, 어떤 生面한 婦人이 자리에 잇는지라 그 온 가닭을 물은 즉 말하되 “나는 金尺里 사는 韓某氏 寡婦로서 이십 세부터 獨居하여 只今 나이 이미 삼십에 이르도록 親家에 잇더니 오늘 아침에 문득 精神이 昏倒하면서 해와 달이 품속으로 들어오고 이상한 氣運이 몸을 찌더니 不知不識 중에 이곳에 왔나이다”하거늘 최옥은 이 말을 듣고 奇異히 생각할 뿐 아니라, 또한 感動된 바 잇어 서로 夫婦의 義를 맺더니¹⁹⁾

이와 같은 이야기는 1920년대 이후 동학 교단에서 만든 모든 국한문 혼용본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이다. 다만 수운의 아버지 최옥이 한씨 부인을 만났을 때는 위의 기록과 같이 나이가 40이 아니라 60이 넘는 나이였다고 한다. 즉 60이라는 노년에 들어 최옥은 한씨 부인을 만나게 되고, 이내 후손을 이을 수운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동학의 역사 기록을 통하여 찾을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은 수운의 어머니가 아버지인 최옥의 정실부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구나 부인의 재혼이 금지되었던 당시의 사회적인 제도와는 다르게 수운의 어머니는 과부의 몸으로 최옥에게 재혼을 한 것이다. 더구나 최옥은 당시 몰락한 양반으로 과거시험에도 여러 번 떨어졌다. 그래서 후학들이나 키우며 살고 있던 노년의 가난한 선비에 불과했었다. 즉 수운은 가난한 선비와 재혼녀 사이에서 만득자로 세상에 태어난 매우 불우한 처지의 인물이었던 것이다.²⁰⁾

그러나 수운의 불우한 출생이라는 설화적 요소의 골격 위에 앞의 설화는 몇 가지 이야기를 더 첨가함으로써 수운의 탄생 전이 매우 신비스러우며 또한 탄생의 필연성이 강조되는 요소들을 지닌 이야기로 바뀌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²¹⁾ 곧 본래 이야기의 골격을 이루고 있던 가난한 선비와 재혼녀의 자식이라는 불우한 서자의 신분은 안으로 감추어지고 수운의 탄생은 그 외양상 영웅적인 탄생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영웅적인 탄생 설화는 곧 당시의 민중들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영웅의 출현을 갈망하는 종교적 정서를 반영한 민중적 설화이다. 나아가 이와 같은 기대가 당시

18) 최제우 탄생설화를 연구한 논문은 대개 최제우의 탄생 이야기를 주로 다루며 주변 이야기로 수운의 부모인 최옥을 거론한다. 윤석산은 그의 논문에서 수운 선생의 탄생 전과 탄생 후의 설화를 비교적 균형 있게 다루었으므로 윤석산의 분류 기준을 따르기로 한다(윤석산, 앞의 글, 406쪽).

19) 『天道敎創建史』, 『제1편』 제1장.

20) 윤석산, 앞의 글, 407쪽.

21) “태양이 몸 안으로 들어온다.”거나 “이상한 기운이 몸을 감싸고 不知불식 중에 이상한 힘에 이끌리어 오게 되었다.”를 볼 때 신비성을 가미하고 “호랑이가 품안에 들어와서 한 씨 부인이 최 옥을 찾아오게 되었다.”를 볼 때 영웅적인 탄생을 의미하는 것 같다.(『韓國口碑文學大系』7-1 慶尙北道 慶州 月城篇(경기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69쪽)

새로운 가르침을 퍼던 수운에 이르러 믿음과 신념으로 바뀌어 민중 속에서 스스로 형성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하면 새 시대를 열망하는 민중들의 소망 또는 기대에 의하여 민중들 사이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고 또 전승된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수운의 출생 이야기는 출생 이전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그 빈한하고 또 불우한 신분의 출생과는 다르게 매우 기이하고 신비적인 이야기로 싸여 있다. 태어날 당시 그 주변에 일어났다는 이야기들을 먼저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時에 紫氣가 屋을 繞하고 異香이 室에 滿하며 龜尾山이 三日을 大鳴하다.²²⁾

위와 같은 이야기는 한문 기록이나 국한문 혼용본을 막론하고 모든 동학 관련 기록에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위에서 잠시 살펴본 바와 같이 탄생 시 “집 주위로 상서로운 기운이 둘러져 있었다.”거나 그 동네의 주산이라고 할 수 있는 “구미산(龜尾山)이 기이한 소리로 울었다.”²³⁾는 등 전형적인 영웅 탄생 설화의 신화소를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

또한 용담유사의 구절 중 『몽중노소문답가』의 한 부분을 보면, 가사의 첫 부분에 자식 없는 두 부부가 한탄을 하다가 천하의 명산인 곤륜산을 찾아 들어가 치성을 드리고 마침내 아이를 가졌다는 줄거리가 나온다. 가사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은 “삼각산(三角山) 한양 도읍 사백년 지낸 후에 하원갑이 이 세상에 남녀 간 자식 없어… ”하는 부분이다. 즉 이들 부부는 단순한 후사가 없는 것에 대한 한탄만이 아니라 한양으로 그 도읍을 옮기어 나라를 세운 지 400년이 지난 뒤 하원갑이라는 쇠퇴한 시대를 맞이하여 이 난국을 구할 올바른 ‘자식이 없음’을 한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같은 한탄은 단순한 한탄이기 보다는 조선이라는 장구한 역사를 지닌 나라가 이제 하원갑을 맞아 망하게 되었는데 이를 구하고 또 새로운 세상을 일으킬 새로운 가르침이 나타나지 않음을 한탄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²⁴⁾

결국 수운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는 전형적인 ‘민중적 영웅 이야기’의 패턴을 띠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 (가) 미친한 출생
- (나) 범인과는 다른 탁월한 능력
- (다) 항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위기와 부딪침
- (라)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자가 됨

22) 『天道教會史』, 『天統』

23) 윤석산, 앞의 글, 410쪽.

24) 위의 글, 412쪽.

(마)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패배함²⁵⁾

수운의 탄생 설화는 궁극적으로 19세기 중반이라는 시대적인 현실 속에서 이 시대의 고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꿈꾸며 새로운 신념 체계를 희망하던 당시 민중들의 의식과 열망이 깃든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 설화들은 단순히 동학 설화이기보다는 그 범주를 뛰어넘어 가장 자연 발생적으로 민중들 속에서 민중들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또 나타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2. 증산의 탄생 설화

조선 후기의 현실은 지배층과 피지배계층의 갈등, 척사와 개방의 갈등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의 이입, 종교적 질서의 혼란 등으로 사회적 위기의식이 심각하게 고조되어 갔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현실 비판과 개혁사상 및 변혁사상에 영향받은 민중은 조선조의 보수적 지배이념이었던 유학사상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영웅의 탄생과 혼란한 사회를 제도할 수 있는 새로운 신념체계를 열망하였다.

신종교 발생이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적 상황에 필연적으로 기인하듯이, 증산은 모순된 기존 질서가 해체되는 혼란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탄생한다.

증산의 출생 이야기는 수운의 출생과 마찬가지로 빈곤하고 또 평범한 신분이 배경이지만 매우 기이하고 신비적인 이야기로 싸여 있다. 증산의 탄강에 관한 이야기도 수운의 탄생 설화와 같이 탄강 이전 설화와 탄강 설화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전경을 통하여 보면 증산 탄강 이전 설화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상고 신농씨(神農)로부터 시작되고 성(姓)으로서는 원시성이로다... ²⁶⁾

이 구절은 전경의 또 다른 구절을 통해 의미를 분명히 할 수 있다.

무신년四月 어느날 또 종도들에게 가라사대「이 세상에 성으로는 풍(風)성이 먼저 있었으나 전하여 오지 못하고 다만 풍채(風采)·풍신(風身)·풍골(風骨) 등으로 몸의 생김새의 칭호만으로 남아올 뿐이오. 그 다음은 강(姜)성이 나왔으니 곧 성의 원시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개벽시대를 당하여 원시만본이 되므로 강(姜)성이 일을 맡게 되었나니라」하셨도다.²⁷⁾

25) 위의 글, 410쪽.

26) 『전경』, 행록 1장 1절.

27) 『전경』, 행록 4장 17절.

위 구절은 행록 1장 1절을 보완 설명하는 구절이다. 『전경』에서는 신농씨 이전에 복희씨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복희씨는 이미 그 역사가 오래되어 맥이 끊어졌기에 신농씨가 복희씨의 뒤를 이었고 신농씨의 후손은 현재까지도 남아 있어서 인류의 시성이 된 것이다.

더욱이 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염제 신농씨의 성은 강이요 명은 석년이라 전한다. 염제 신농씨는 신상을 갖추서 어 화덕으로 임금이 된 까닭에 염제라 일컬으며 백성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쳤으므로 신농씨라 존칭되었다. 따라서 증산이 강성을 가지고 탄강하는 것은 인간전래의 시원을 거스른다는 상징성을 지닌 종교적 사건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탄생 전 설화와 마찬가지로 전경을 토대로 증산의 탄강 설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친은 권(權)씨이며 성함은 양덕(良德)이니 이평면(梨坪面) 서산리(西山里)에 근친가서 계시던 어느 날 꿈에 하늘이 남북으로 갈라지며 큰 불덩이가 몸을 덮으면서 천지가 밝아지는도다. 그 뒤에 태기가 있더니 열석 달 만에 상제(上帝)께서 탄강하셨도다.²⁸⁾

상제께서 탄강하실 때에, 유달리 밝아지는 산실(産室)에 하늘로부터 두 선녀가 내려와서 아기 상제를 모시니 방안은 이상한 향기로 가득 차고 밝은 기운이 온 집을 둘러싸고 하늘에 뻗어 있었도다.²⁹⁾

증산은 1871년 9월 19일 전라도 고부군 우덕면 객망리에서 탄강했다. 지금의 정읍이다. 탄강 이전 증산이 잉태될 때의 이야기와 탄강 설화를 살펴보면 하늘과 불덩이, 13개월과 선녀 등의 신화소는 전형적인 영웅 출생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늘이 남북으로 갈라지며 큰 불덩이가 덮치니 태기가 생겼고 13개월 만에 탄생했다는 것은 물론 신앙적으로는 신현(神顯)하는 상징적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하겠다. 그러나 이를 보편적 종교 문화의 테두리에서 당대 민중들의 종교적 열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증산에게 어떠한 종교적 기대를 담았는지도 역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수운의 탄생과는 달리 증산의 탄생은 천상신의 지상강림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상제께서 九천에 계시자 신성·불·보살 등이 상제가 아니면 혼란에 빠진 천지를 바로잡을 수 없다고 서양(西洋) 대법국 천계탑에 내려오셔서 삼계를 둘러보고 천하를 대순하시다가 동토에 그쳐 모악산 금산사 미륵금상에 임하여 三十년을 지내시면서...갑자년에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신미년에 스스로 세상에 내리기로 정하셨도다.³⁰⁾

상제께서 어느 날 김 형렬에게 가라사대 ...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혼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28) 『전경』, 행록 1장 9절.

29) 『전경』, 행록 1장 10절.

30) 『전경』, 예시 1절.

상도가 어거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이 겁액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 내가 서양(西洋)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내려와 천하를 대순(大巡)하다가 이 동토(東土)에 그쳐 모악산 금산사(母岳山金山寺) 삼층전(三層殿) 미륵금불(彌勒金佛)에 이르러 三十년을 지내다가 … 갑자년(甲子年)에 드디어 천명과 신교(神敎)를 거두고 신미년(辛未年)에 강세하였노라」고 말씀하셨도다.³¹⁾

앞서 살펴본 증산의 탄생설화와 위의 예문을 요약해 보면 증산의 탄강과정은

- (가) 구천의 상제
- (나) 신성 불 보살 등의 하소연
- (다) 서양 대법국 천계탑에 하강
- (라) 금산사 삼층전 미륵금상에 30년간 입어
- (마) 스스로 강세하기로 정함
- (바) 하늘이 남북으로 갈라지며 큰불덩이가 몸을 덮치는 대몽
- (사) 상제의 인간 강세

의 형식으로 이뤄진다. 천상에서의 질서 속에서 최고신의 위치에 있던 신적 존재가 인세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상세계를 만들기 위한 권능발현을 위해 인세에 강림했다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성·불·보살들이 구천에 있는 상제에게 하소연한 것은 신계에서의 증산의 위격을 표현한 부분이며, 천계탑과 미륵금불로의 하강은 수직적 하강과 수평적 이동이라는 복합성을 지닌다. 구천이라는 절대적 위치에서 속세로의 이동 즉, 절대적 성(聖)에서 속(俗)으로의 이동이 천계탑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수직적으로 하강한 것이다. 서에서 동으로의 이동은 수평적 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양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명의 태동을 강하게 희망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신성 불 보살 등의 존재론적 해석은 불교적으로 명확하다. 그러나 증산의 종교 활동 시기가 일제의 강점기와 때를 같이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이는 당시의 불특정 다수인 기층민중들을 대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그러면 이것은 당시인들이 증산이라는 종교적 인물에게 바라는 신앙고백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즉 절대적 존재가 강림하여 혼란과 질곡에 빠진 민중들의 길잡이가 되어 달라는 종교문화적 성격이 투영된 것이라고 하겠다.

31) 『전경』, 교운 1장 9절.

IV. 신종교 개창자들의 탄생설화와 개벽사상

하늘로부터 강림한 신은 그 목적이 인간세계에 대한 구원에 있으며, 천신강림의 신화소는 이상세계의 건설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신종교 개창자들의 출생과 관련한 이야기들은 당시의 고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민중들의 열망이 담겨진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출생과 관련된 내용은 한국 신종교의 주요사상과 그 맥을 같이한다. 한국종교의 문법인 개벽사상이 그것이다.

동학의 개벽사상을 논하기에 앞서 수운은 동학 창도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던 종교체험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뜻밖에 사월에 마음이 서늘해지며 몸이 떨리어 무슨 증세인지 알 수 없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때 무슨 신선의 말씀이 문득 귀에 들렸다. 놀라 일어나 물어보니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고 하는데,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 라고 하였다.³²⁾

1860년 음력 4월 5일에 이루어진 수운의 득도는 동학 창도의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 종교적 수행 끝에 하늘님을 영적으로 만나 천명을 받았다는 것은 당시 제기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늘님으로부터 제시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혼몽한 상태에서 수운이 만난 상제는 일반적으로 만물의 이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절대적 능력을 가진 존재로 상징된다. 이러한 존재와 수운이 직접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은 수운에게 있어 특별한 체험이 아닐 수 없었다.

상제는 수운과의 접촉 목적을 수운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라. 사람이 어찌 알겠느냐. 천지를 알면서도 귀신을 알지 못하니, 귀신이라는 것이 나이니라. 너에게 무궁무궁한 도를 줄 것이니 닦고 연마하라. 그 글을 지어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법을 정하여 덕을 펴면, 너로 하여금 장생하여 세상에 환히 드러나게 하리라.³³⁾

ㄱㅣ벽후 오만년의 네가 또흔 침이로다 ㄴ도 또흔 ㄱㅣ벽 이후 노이무궁 ㅎ다가서 너를 만 ㄴ 성공ㅎ니 ㄴ도 성공 너도 득의 너의 집안 운수로다.³⁴⁾

상제는 세상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인간과 접촉한 것이 되고, 최초의 인간은 수운이다. 무궁한 도를 잘 수련하고, 글을 지어 사람들을 가르치고, 법을 정해서 널리 펴게 되면, 이를 행하는 모든 사람은 군자가 되고 신선이 될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32) 『東經大全』, 「布德文」

33) 『東經大全』, 「論學文」

34) 『龍潭遺詞』, 「龍潭歌」

어찌했든 수운은 상제를 만나는 종교체험을 계기로 변화를 예감하게 된다. 그리고 이 변화를 ‘개벽’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ㄱ 1 백시 국초일을 만지장서 누리시고 십이제국 다 버리고 아국운수 먼저 흥네.³⁵⁾

십이제국 괴질운수 다시 ㄱ 1 백 안일년가³⁶⁾

ㄱ 1 백후 오만년의 네가 또한 침이로다 나도 또한 ㄱ 1 백 이후 노이무궁 흥다가서 너를 만
성공하니 나도 성공 너도 득의 너의 집안 운수로다.³⁷⁾

사실 수운의 저술에서는 저술량에 비해 개벽이라는 단어가 발견되는 부분은 이상의 세 곳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수운의 사상이 개벽에 맞춰지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상제와의 만남과 득도를 계기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는 종교적 믿음을 가졌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수운의 믿음은 『용담유사』에서도 발견된다.

삼각산 훈양도읍 스백년 지난 후의 흥원갑 이 세상의... ³⁸⁾

특 1 평성세 다시 정흥 1 국태민안 흥 거시니 ㄱ 1 탄지심 두지 말고 츠츠츠 디닛셔라 흥원갑
지느 1 거든 상원갑 호시절의 만고 업는 무극도 1 도 이 세상의 날 거시니³⁹⁾

수운은 조선이 개국되어 4백 년이 지난 당시를 하원갑이라 하고 있다. 당시의 상황을 하원갑이라는 표현을 통해 다시금 상원갑의 호시절이 도래할 것이며, 당시가 하원갑에서 상원갑으로의 교체시점이라는 것이다. 결국 교체시점에서 개벽을 통해 상원갑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상·하원갑은 시기나 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원갑은 말법시대이고 상원갑은 이상적인 새 세상이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더구나 수운이 오만 년이라는 장구한 기간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단순히 180년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는 볼 수 없다. 오직 말법시대의 하원갑과 새 세상이라는 상원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이다.⁴⁰⁾

개벽이라는 말은 천지개벽 또는 천개지벽의 줄임말로 하늘과 땅이 열린다는 의미로 통용

35) 『龍潭遺詞』, 『安心歌』

36) 『龍潭遺詞』, 『龍潭歌』

37) 『龍潭遺詞』, 『龍潭歌』

38) 『龍潭遺詞』, 『夢中老少問答歌』

39) 『龍潭遺詞』, 『夢中老少問答歌』

40) 김형기, 『후천개벽사상연구』(서울: 한울아카데미, 2004), 23쪽.

되었다. 즉 개벽은 이 세상이 처음 열렸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수운은 개벽이라는 표현을 새롭게 사용한다. '다시 ㄱ 1 벽'이라는 표현을 통해 하늘과 땅이 처음 열리는 '개벽'이 아닌 새로운 세상의 도래라는 인간적 열망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하늘님 하신 말씀 ㄱ 1 벽 후 오만년의 내가 또한 침이로다'라는 표현을 통해 '다시 ㄱ 1 벽'의 주관자를 밝히고 있다. 또한 개벽의 주관자인 하늘님과 수운이 직접 대화를 나누었다는 종교적 체험은 그에게 '하늘님과 만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요소이다.

한편, 수운의 탄생과는 달리 증산의 탄생은 천상신의 지상강림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나는 서양(西洋)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내려와서 천하를 대순하다가 삼계의 대권을 갖고 삼계를 개벽하여 선경을 열고 사멸에 빠진 세계 창생들을 건지려고 너의 동방에 순회하던 중 이 땅에 머문 것은 곧 참화 중에 문힌 무명의 약소 민족을 먼저 도와서 만고에 쌓인 원을 풀어주려 하노라. 나를 좇는 자는 영원한 복록을 얻어 불로 불사하며 영원한 선경의 낙을 누릴 것이니 이것이 참 동학이니라. 궁을가(弓乙歌)에 조선 강산(朝鮮江山) 명산(名山)이라. 도통군자(道通君子) 다시 난다」라 하였으니.⁴¹⁾

증산이 천하를 대순하다가 조선을 택한 것은 무명의 약소 민족을 도와서 원을 풀어주려는 해원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해원의 의미를 탄생설화에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영원한 복록과 영원한 선경의 낙을 약속하는 것으로써 참 동학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증산은 후천선경 건설을 위해 세상이 개벽되어야 하며 자신이 개벽장임을 선언한다.

시속에 말하는 개벽장은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비겁에 쌓인 신명과 창생을 건지는 개벽장(開闢長)을 말함이니라.⁴²⁾

상제께서 이듬해 사월에 김 형렬의 집에서 삼계를 개벽하는 공사를 행하셨도다. 이때 상제께서 그에게 가라사대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따라서 행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느니라. ... 우리는 개벽하여야 하나니 대개 나의 공사는 옛날에도 지금도 없으며 남의 것을 계승함도 아니오. 운수에 있는 일도 아니오. 오직 내가 지어 만드는 것이니라. 나는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운을 열어 낙원을 세우리라」 하시고 「너는 나를 믿고 힘을 다 하라」고 분부하셨도다.⁴³⁾

'개벽장'이란 표현과 '나는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라는 표현을 통해 증산 스스로가 개벽을 시행한 개벽의 주체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증산이 행한 개벽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것이라는 내용을 통하여 개벽의 유일회성을 밝히고 있다.

41) 『전경』, 권지 1장 11절.

42) 『전경』, 공사 1장 1절.

43) 『전경』, 공사 1장 2절.

증산은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천하 창생이 진멸할 지경”(『전경』, 교법 1장 1절)에 처한 참혹한 세상이라고 단정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상제께서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이니라」고 김 형렬에게 말씀하시고 그중의 명부공사(冥府公事)의 일부를 착수하셨도다.⁴⁴⁾

증산은 진멸할 지경에 처한 원인이 인간사물을 지배하는 잘못된 우주적 질서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 상생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우고 민생을 건지려 한 것이다. 증산은 상극의 원리가 지배하는 선천을 개혁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반대로 후천의 세상은 상생의 원리에 의해 운행됨을 의미한다. 천지공사를 통해 그 근본적 질서의 재편을 꾀하고자 하였던 증산은 개혁의 방법론으로 해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종교적 가치를 해원에다 두고 있는 것이다.

해원은 후천을 열기 위하여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선천의 진멸지경은 상극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 근원적 요소를 해원이라는 원칙에 의해 해결했다고 하는 것이 증산의 개혁사상이었다. 결국 증산의 강림은 소외된 민중을 구원하고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인 것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당시대의 기층민중들은 동학의 실패에서 오는 상실감을 증산에게 투사한 것이고 보다 더 강력한 한국적 절대자를 생산해 낸 것이다.

V. 맺음말

조선후기의 종교운동⁴⁵⁾은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하나는 조선조의 유교가 갖는 모순과 한계성을 자체적으로 극복함으로써 위기상황을 극복하려는 양반계급 내부의 유교보완운동이다. 다른 하나는 유교적 가치와 유교적 사회체제로부터 소외와 억압의 대

44) 『전경』, 공사 1장 3절.

45) 황선명은 이를 종교상징을 축으로 한 문화론적 시각에서의 규범문화의 패러다임을 대체하여 들어가는 감성공동체의 유연한 흐름, 즉 유동성이라는 언어로서의 운동이 가지는 상징적 은유(metaphor)를 읽어 내려고 하기도 한다(황선명, 『조선조 종교사회사 연구』(서울: 일지사, 1992), 325-328쪽).

상이 되어왔던 피지배계급이 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계기로 하여 자신들의 욕구와 열망을 체계화하려는 운동이었다.⁴⁶⁾ 이러한 경향 속에서 발생하게 된 조선후기의 종교운동은 민중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존재의미를 각성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아가 만민평등사상이 확산되면서 지배계층에 항거하는 변혁적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었다.⁴⁷⁾

본 논문에서 살펴본 한국 신종교 개창자들의 탄생설화에서는 19세기 말이라는 특수한 시대상황으로 볼 때, 잘못된 지배체제에 오랫동안 억압되었던 민중들의 잠재된 욕구와 보다 나은 경제적 상황에 대한 열망이 투사된 것으로 이해된다. 아울러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한 상황에서의 지상과제였던 민족주의적 성격도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급속도로 진행된 조선 후기 사회의 붕괴와 서구의 제국주의적 영향에 의한 문화적 충격 현상, 기존 규범체계의 혼란에서 오는 규제력 상실 등 조선 후기 사회에서 발생한 사회적 아노미 현상은 민중들에게 상실감과 무기력함으로 이어지는 정신적 공백현상을 야기시켰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민중들은 정신적 공백현상을 타개하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대망을 기약하였다. 결국 그들은 종교사상적 회귀를 추구하며 한국 신종교 개창자들을 통하여 미래대망의 현실적 실현이라는 기대감을 충족하고자 한 것이다.⁴⁸⁾

수운이나 증산과 같은 한국 신종교의 개창자들은 이처럼 당시의 정신적 고뇌에 시달리는 민중들의 종교적 구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회인식과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적 자기각성을 통하여 새로운 종교사상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한국 신종교 개창자들의 탄생설화를 통하여, 이것이 단순히 한 종교 개창자의 신성성을 강조하거나 신이함이 극대화된 이야기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는 문화적 코드를 발견해야 한다. 그들의 탄생설화를 통하여 고통과 불운 그리고 좌절을 극복하고자 했던 시대적 의미의 문제를 유추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에는 민중들의 파토스적인 열광이 반영된 것이고 감성문화로서의 종교적 이상향을 실현하려는 그들의 연대적 행위가 투영된 우리의 소중한 문화라는 것이다.

46) 위의 책, 335-345쪽.

47) 윤재근, 앞의 글, 25쪽.

48) 위의 글, 26쪽.

참고문헌

- 『전경』
 『東經大全』
 『龍潭遺詞』
 『天道敎創建史』
 『天道敎會史』
 김난주, 『융 심리학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신화』, 서울: 집문당, 2007.
 김태곤, 『韓國의 巫俗神話』, 서울: 집문당, 1985.
 김형기, 『후천개벽사상연구』, 서울: 한올아카데미, 2004.
 나경수, 『한국의 신화연구』, 서울: 교문사, 1993.
 박범석, 「단군신화 상징의 종교학적 해석」, 『선도문화』 제1집, 충남천안: 국제뇌교육종합대학 원대학교 국학연구원, 2006
 서대석, 『한국신화의 연구』, 서울: 집문당, 2001.
 신동욱 외, 『신화와 원형』, 서울:고려원, 1992.
 윤석산, 「동학설화와 동학의 역사—수운 최제우의 성장과 출생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19 집, 서울: 비교민속학회, 2000.
 윤재근, 「대순사상의 인간형성이론」,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윤천근, 「최제우의 인간관」, 『한국동서철학연구회 논문집』 제12호, 대전: 한국동서철학회, 1995.
 윤혜신, 「한국신화의 입사의례적 탄생담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이기백 편, 『단군신화논집』, 서울: 새문사, 1988.
 황선명, 『조선조 종교사회사 연구』, 서울: 일지사, 1992.
 『韓國口碑文學大系』7-1 慶尙北道 慶州 月城篇, 경기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大林太良, 권태효 역, 『신화학입문』, 서울: 새문사, 1995.
 Jack Tresider, 김병화 역, 『상징이야기』, 서울: 도솔, 2007.
 L.K. 뒤프레, 권수경 역, 『종교에서의 상징과 신화』, 서울: 서광사, 1996.
 M.엘리아데, 이은봉 역, 『종교형태론』, 서울: 형설출판사, 1982.
 Ninian Smart, 김윤성 역, 『종교와 세계관』, 서울: 이학사, 2002.
 윌리엄 페이든, 이민용 역, 『성스러움의 해석』, 서울: 청년사, 2005.
 Eliade, M. *Patterns in Comparative Religion*, trans. by Rosemary Sheed,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96.

원고접수: 2010년 1월 20일 1차심사: 1월 31일 게재승인일: 2월 5일

연구자소개: 윤재근

- ① 전공: 종교교육, 한국신종교사상/소속: 대진대학교 종교문화학부
 - ② 관심영역: 종교교육, 한국종교, 한국신종교사상
 - ③ 주요논저: 종교와 인격교육, 대순사상의 인간형성이론, 대순사상과 생태적한경보존의 문제, 대순사상의 종교교육이론, 대순사상에 있어 인간의 욕망에 관한 해석
 - ④ E-mail: jkyoun@daejin.ac.kr
-

Abstract

The Founder's Birth-fable of the New-religion and Religious Culture in Korea

Youn, Jaekeun

Daejin University

This research will focus on the Founder's 'birth fable' as a key point of the Korea's religious base. Soo-Wooun, Jeung-San, and So-Tae-San, the so called Founders of the New-religion in Korea, shared the same world of 19th century. The near-end of Chouson dynasty. The life of these three people somewhat looks and sounds like a myth itself. Their life, starting from their birth to the founding of their religion, is filled with mysterious events and special happenings. However when closely examined, there exists an appropriateness to these mythical events, as it contains the shape of utopia which people of that time dreamt of, and trends of that time.

We can see the fact that the desire of ordinary people at the time of 19th century, whom were ruled by a wrong system, and whom received a lot of suppression, was projected to these so called mythical birth-fable of the founders.

Moreover as Korea was a colony of the Japanese empire at the time, it is plausible to say that a sense of democracy was added as well. Under these circumstance, the ordinary people wanted to overcome the chaos and wished to gain a new hope by using a religious method.

The founders of New-religion of Korea, fully understood the role of the religion as an aid to relieve the anguish of the ordinary people, and by using this and their own self-awakening, found a new religion. Therefore,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show how the ordinary people's will was projected by examining the birth-fable of the Founders

Key words: New-religion in Korea, Near end of Chouson dynasty, Birth-fable, Soo-Woon, Jeung-San, Gae-Beuk, Hae-Won(解冤, resolvment of desire)